

A Study on the Description Related to Buddhism in Religious Studies: Focusing on National Curriculum and Textbooks

Eunyoung Kim^{*}

Dongg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rtrayal of Buddhism in the 'Religious Studies' subject curriculum and textbooks. This analysis aims to evaluate the alignment between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extbooks, which serve as the primary instructional tools in the educational context.

[Contents] To achieve this objective, I closely examined two 'Religious Studies' textbooks approv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I compared and analyzed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curriculum alongside the textbook materials, focusing on key Buddhist concepts. Additionally, I sought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se textbooks reflect the curriculum guidelines and standards.

[Conclusions] First, in both the religious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Buddhism is primarily depicted as a world religion and a traditional Korean religion, with many of its concepts and theories presented appropriately. Second, the treatment of Buddhism's role as a modern Korean religion is relatively brief. Third, while the two textbooks share many similarities, the later version incorporates improvements over its predecessor. To maintain this alignment and address limitations in future editions, I recommend the following: greate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enhancing the diversity and expertise of the authorship and review committees, as well as addressing the necessity of developing comprehensive teacher guides.

[Keywords] National Curriculum, religious studies, education about religions, textbooks, religious education, Buddhism

^{*} **Corresponding to** Eunyoung Kim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the Expansion of Academic on Korea, Dongguk University) E-mail : tara@dg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종교학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불교 서술 고찰

김은영

동국대학교 K학술확산연구소 연구초빙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삶과 종교’ 교과목의 도입을 앞두고 직전 시기의 ‘종교학’ 교과와 인정교과서의 불교 서술을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국가교육 과정과 교육현장의 주요한 학습도구인 교과서 간의 서술 적합성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인정 승인을 받은 『종교학』 교과서 2종을 구체적인 고찰 대상으로 삼았다.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교과서의 단위 체계 비교 분석 및 불교 서술 사례들을 주요 개념어를 중심으로 찾아보았다. 동시에 해당 교과서들이 교육과정 및 인정도서 선정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학’ 교과과정과 교과서에서 불교는 세계종교와 한국 전통 종교로서 주로 서술되고 있으며, 본문에 언급되는 개념이나 이론의 상당 부분이 적합하게 검증되어 있었다. 둘째, 한국의 현대 종교로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략한 서술 경향을 보였다. 셋째, 발행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2종의 교과서는 본문 내용의 유사성이 다수 발견되며, 후기 교과서는 이전 교과서 서술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발행되었다. 향후 교과서 개발에서 이러한 적합성이 계승되면서도 한계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필진과 심의진 구성 시 다양성과 전문성에 대한 섬세한 고려, 교사용 지도서의 동시 개발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국가교육과정, 종교학, 종교교육, 교과서, 불교

I. 서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다가오는 2025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중등과정의 종교 관련 교과에서도 상당한 개정이 진행되어 고시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할 점은 ‘삶과 종교’라는 새로운 교과명이다. 수년간 유지된 ‘종교’라는 교과명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활과 종교’로 변모했다가 2009 개정 시기에 ‘종교학’으로 변경되어 2011 및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유지되었던 것에서 한 단계 또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변천의 의미를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역사라는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대 교육의 출발과 함께 종교계 학교에서 종교교육(education of the religion)이 시작한 초기와 제4차 국가교육과정에서 ‘종교’라는 정식 교과가 편제된 과도기 이후에 독립교과로서 교과의 체계가 고도화되고 명료화되는 과정을 거친 이후(Chung, 2001: 28-38), 교과명의 거듭된 변화는 교양교육으로서 종교 교과의 지향점을 보여주었다(Ko, 2016: 13-18). 특히 직전 교육과정의 ‘종교학’ 교과명은 객관적 교양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s)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미 인접 교과들에서도 객관적 대상으로서 학습되고 있는 종교라는 주제에 대해 종교 교과에서도 지식 전달 차원의 교육이 알맞은가, 지적 능력 신장보다는 삶의 태도로서의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등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여전히 종교계 사립 중등학교에서만 개설되고 있는 종교 교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종교교육의 가능 여부와 ‘종교학’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의 실제 채택률과 사용 빈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관련 교과서의 제작과 발행도 영향을 받아왔다. 기존에는 종립학교의 자체 교재(『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와 인정교과서(『종교(기독교)』, 『종교(불교)』 등) 개발과 사용이 일반적인 과정이었다(Kim, 2020: 42-44). 제도화의 차이만 있었을 뿐 각 종교와 종파가 교과서 개발을 주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종교학’ 교과 시기부터는 시도교육청이 개발을 주도한 인정도서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2009 개정 시기에 경상북도교육청이 발행한 『종교학』과 2015개정 시기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발행한 『종교학』 교과서 2종이 바로 그것이다(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2014;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2018).

‘삶과 종교’ 교과 도입을 목전에 두고, 2024년 현재 인정도서 개발과 심사가 진행되었고 2025년도부터 새로운 교과서가 사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변화의 앞에서 ‘종교학’이라는 큰 변화였으며, 또 다른 과거가 될 시도와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이 바탕이 되어야만 새롭게 도입될 ‘삶과 종교’ 교과의 시대를 슬기롭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종교교육학 분야의 중등과정 종교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국가교육과정의 변

천 등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관련 교과서 내의 개별 종교들의 서술 적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불교계와 교육학 분야에서는 윤리나 역사와 같은 인접 교과의 교과서의 불교 서술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이다(Jogye Order Institute for the Study of Buddhism and Society 2016a, 2016b; Shin 2019; Choi 2024).

본고에서는 ‘종교학’ 교육과정의 종교들에 대한 서술 태도와 지향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실현된 교과서를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그 논의가 자칫 너무 추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불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종교(불교)』, 『생활과 철학』 등 자체적으로 인정도서로서 교과서를 개발하여 직접 사용하던 불교계 종립학교는 ‘종교학’ 교육과정부터는 자체 개발 인정도서도 없었으며 『종교학』 교과서도 채택하지 않았다. 즉, 『종교학』 교과서의 불교 서술은 이웃 종교의 종립학교에서만 읽히고 교육된 것이다(Sohn, 2020: 24-25). 이에 그 내용과 체재를 점검하면서, 그 특징과 한계도 함께 짚어보기로 한다.

II. ‘종교학’ 교육과정과 불교

앞서 언급되었듯이 ‘종교학’ 교과 교육과정은 2009 개정 시기를 시작으로 2015 개정 시기까지 그 명칭이 유지되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종교학’ 교과를 학교교육이라는 공적인 장에서 종교와 사회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는 공공성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Ko 2016: 14-15).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이 설계된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학’이라는 구도 안에서 불교는 어떻게 서술될 수 있을지 각 교육과정 시기 별로 살펴보겠다.

1. 2009 개정 시기

이 시기 ‘종교학’ 교과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전반과 그 흐름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교과 “목표”에서부터 ‘종교학’만의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이다. ①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기 위해 종교에 대한 폭 넓고 균형 있는 지식 습득, ② 종교들의 다양한 답변을 통한 성숙한 인격 배양, ③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 도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섯 가지 세부 목표들도 있는데,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불교가 언급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에서 불교, 유교, 도교, 그리스도교 등 다양한 외래 종교와 고유 종교들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개별 종교들의 사례를 통해 종교 일반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고 심화하는”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93-94).

‘종교학’ 교육과정의 내용은 모두 일곱 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각 영역은 다시 크게 기본적인 세 개 분야와 추가적인 한 개 분야로 묶인다. 먼저 종교학 일반을 이해한 후, 다양한 종교들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영역으로 이어지는데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와 “종교적 인간관, 사회관, 자연관”, “세계의 종교와 문화”와 “한국의 종교와 문화”가 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종교들의 이해” 영역에서 개별 종교 사례를 통해 종교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고 심화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불교의 역사, 경전, 교리, 일상생활 등이 이와 같은 영역들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불교라는 종교가 명시된 영역 설명을 발췌하자면, 다음과 같다.

(5) 영역5 : 세계의 종교와 문화세계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며, 우리가 접하거나 알고 있는 종교들은 그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특히, 세계사의 전체 흐름은 물론 현대 세계에서 종교가 밀접히 개입되어 벌어져 온 각종 사건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 단원의 목표는 동양의 유교, 도교, 불교, 서양의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 힌두교, 부족 종교, 현대 신종교 등 세계 주요 종교들의 특성과 핵심 사상 및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그 문화적 전통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6) 영역6 : 한국의 종교와 문화종교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보편성만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에 뿌리내리는 토착화를 통해 형성되어 나름대로의 독특성도 갖게 된다. 이 단원은 종교 일반 및 세계 주요 종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심을 좀 더 좁혀 한국의 종교 문화가 갖는 독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의 종교 문화는 선사 시대부터 존재해 온 고유한 종교인 하늘 신앙과 무속 신앙, 고대의 외래 종교로서 한국의 전통 종교로 자리 잡게 된 불교, 유교, 도교, 근대의 외래 종교로서 한국 종교의 하나로 토착화해 온 그리스도교, 근대 이후 성립된 신종교들, 그리고 아직 토착화 단계를 보이는 외래 종교인 이슬람교 등이 공존한다. 한국 종교의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한국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끼쳐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이다.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97-98)

종합하자면 불교는 세계종교와 한국종교 양 분야에서 동시에 서술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이는 고대로부터의 전통이자 현대 종교인구의 주요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의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각 영역과 분야는 그 자체의 독립성을 가지는 동시에 수평적인 관계와 유기적 맥락 속에서 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해당 영역 외에도 종교 일반을 다루는 분야에서도 불교와 관련된 서술이 가능할 것이다.

2. 2015 개정 시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직전 과정과는 다르게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목표” 대신 교과별 독립된 “성격”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교과가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시기의 ‘종교학’ 교육과정의 “성격”의 경우, 종교와 관련하여 성찰적 안목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 종교 문화 이해력, 비판적 성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감수성, 윤리적·사회적 실천 능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면서 여섯 항목의 역량과 필요성을 각각 설명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58-59). 이를 바탕으로 세부 목표 여섯 가지를 이어서 제시하는데, 불교, 기독교 등과 같은 개별 종교들의 고유 명칭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59).

이는 이 시기 ‘종교학’ 교과가 개별 종교들에 대한 지식의 누적이 아닌 종교라는 총괄적 현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된 종교 명칭들은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의 ‘내용 체계’에서야 찾아볼 수 있다. 불교의 경우, ‘종교전통과 문화유산’ 영역 중 핵심 개념인 ‘세계의 종교’에서 “유교·도교·불교·힌두교 등에는 역사·문화적인 특징이 있다” 등의 일반화된 지식으로 언급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60). 이 외에는 ‘성취기준’에서 체계(2) 종교의 구성, 체계(4) 종교 전통과 문화유산 순서 등에서 사례의 일환으로 불교적 명칭이나 관련된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체계(7) 개별 종교들의 이해에서 구체적으로 불교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서 집필 시 불교가 해당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Ⅲ. 『종교학』 교과서의 서술 체계와 내용

앞서도 밝혔듯, ‘종교학’ 교과는 2009, 2011, 2015 개정 교육과정 동안 유지되었다. 다만 2009 개정과 2011 개정 사이의 짧은 주기로 인하여 2015 개정 시기까지 실제 교과서는 2권만 발행이 되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인정 승인을 받은 『종교학』 교과서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교과서의 제작과 관리에 대한 연구는 이미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Ko, 2021), 본고에서는 교과서 본문의 구체적인 불교 서술 사례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살펴보았다.

1. 2009 개정 시기

먼저 2009 개정 종교학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영역, 내용)와 교과서의 체계라 할 수 있

는 단원명을 비교해보았다. 대부분 국가교육과정의 영역과 내용 체계에 따라 교과서 단원명과 체계도 유사하게 설정되었다. 교육과정의 영역에 해당하는 대단원명 중 수정된 것은 ‘개별 종교들의 이해’→‘개별 종교의 이해’가 유일하다. 교육과정의 내용에 해당하는 중단원명 중에서 변경된 것은 1단원(궁극적인 물음과 문제→다양한 문제들, 종교와의 만남과 문제 해결→문제해결과 종교), 4단원(종교의 사회적 기능→종교의 사회관), 6단원(한국 고유 종교의 이해→한국 고대 종교의 이해), 7단원(경전과 교리→경전과 교리의 이해, 종교 생활→개별 종교 생활의 이해, 사회적·문화적 역할→종교의 사회문화적 역할, 나의 종교관 점검→종교관의 배경과 설계)에 해당한다. 변화가 있는 목차 대부분은 본래 교육과정 내용을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교양교육 수준에 맞도록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수정으로 이해된다. 즉, 이 시기의 종교학 교과서는 국가교육과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제작된 것이다.

이 중에서 불교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교과서 본문을 단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종교학』(2014) 교과서에서 사용된 불교 관련 개념 및 용어
 <Table 1>The Buddhist Concepts and Terms Used in the *Religious Studies* (2014)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불교 서술 관련 주요 개념어 및 목차
1단원 인간과 종교	1. 다양한 문제들	1) 일상적 문제들	-
		2) 근원적 문제들	-
	2. 문제해결과 종교	1) 문제해결의 방식들	-
		2) 믿음과 이해의 관계	불국토
	3. 종교의 의미와 역할	1) 종교의 의미	-
		2) 종교의 역할	
2단원 종교 현상의 이해	1. 종교적 세계관의 이해	1) 종교의 우주관과 역사관	세기경(世記經,)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업(業), 무명업(無明業), 번뇌, 삼라만상
		2) 종교의 생사관	사성제(四聖諦), 생사즉열반(生死即涅槃), 오온(五蘊), 12연기(緣起), 육도(六道)
		2) 종교의 구원관	윤회, 해탈, 팔정도, 육바라밀,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 오계,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
	2. 종교 경전의 이해	1) 종교 경전의 중요성과 보편성	대장경, 결집(結集)
		2) 종교 경전의 영향과 삶	삼보, 법보, 경전, 사경(寫經), 불경 독송
		3) 경전 해석의 다양성과 역동성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및 한역 불경, 교상판석(敎相判釋), 종파불교, 소의경전(所依經典),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3. 종교 의례의 이해	1) 달력 의례	법회, 성도절(成道節), 석가탄신일, 법회
		2) 통과 의례	수계
		3) 희생제의	희생제의 금지
		4) 재난의례와 주술	-

<표 1> 『종교학』(2014) 교과서에서 사용된 불교 관련 개념 및 용어 (계속 1)

<Table 1>The Buddhist Concepts and Terms Used in the *Religious Studies* (2014) (continued 1)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불교 서술 관련 주요 개념어 및 목차
2단원 종교 현상의 이해	4. 종교 공동체의 이해	1) 종교 공동체의 구조와 특성	상가(samgha), 승가(僧伽), 테라바다, 대승불교, 종단, 주지제도
		2) 종교전문인과 신자의 관계	승려, 수행승, 불교대학, 사부대중
		3) 종교 공동체의 도덕규범과 활동	오계, 포교
3단원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	1. 종교적 차이의 맥락	1) 종교적 차이	-
		2) 동양종교, 서양종교, 토착종교	불교의 분포
		3) 제도 종교와 대중 종교	불경, 상좌부, 대중부, 수계, 보시, 조계종단
	2. 종교적 태도의 다양성	1) 절대자를 향한 봉헌	붓다, 보살
		2) 내적 자아의 완성	다르마(Dharma), 공(空)
		3) 초자연적 힘의 통제	-
	3. 종교 간의 대화와 공존	1) 종교적 갈등과 평화	스리랑카 내전
		2) 닫힌 신앙과 열린 신앙	-
		3) 종교, 인권, 평화, 생명	-
	4. 세속 사회와 종교	1) 근현대 세속 사회의 특성	-
		2) 세속 사회 속의 종교	템플 스테이
		3) 공산주의와 종교	-
4단원 종교적 인간관, 사회관, 자연관	1. 종교적 인간관	1) 악과 고통의 문제	(3) 인도종교전통: 업, 윤회, 해탈
		2) 종교적 인간 이해	(2) 불교의 인간 이해: 중생(衆生), 육도윤회(六道輪廻), 무명(無明), 해탈, 오온(五蘊), 무아(無我), 아라한(Arhan, 阿羅漢) 보살(Bodhisattva, 菩薩)
	2. 종교의 사회관	1) 종교와 사회 구성	(1) 종교의 가르침과 사회적 이념: 혼요십조
		2) 종교와 사회	(2) 종교의 가르침이 지닌 사회적 성격: 열반, 깨달음, 자비, 보시
		3) 종교와 정치	-
		4) 종교와 경제	보시, 사원경제
	3. 종교적 자연관	1) 종교의 자연 이해	연기(緣起), 인드라마, 법계연기, 불성(佛性), 불살생
		2) 생태계 파괴와 종교적 해법	인드라마생명공동체, 불교환경연대
		3) 종교와 과학의 충돌과 조화	-

<표 1> 『종교학』(2014) 교과서에서 사용된 불교 관련 개념 및 용어 (계속 2)

<Table 1>The Buddhist Concepts and Terms Used in the *Religious Studies* (2014) (continued 2)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불교 서술 관련 주요 개념어 및 목차
5단원 세계의 종교와 문화	1. 동양 종교의 이해	1) 유교의 이해	-
		2) 도교의 이해	-
		3) 불교의 이해	(1) 불교의 발생 배경 (2) 붓다의 생애 (3) 붓다의 가르침 (4) 부파불교 시대의 전개 (5) 대승불교의 전개 (6) 대승불교의 교리와 사상 (7) 인도 밖의 불교
	2. 서양 종교의 이해	1) 그리스도교의 이해	-
		2) 이슬람교의 이해	-
	3. 기타 종교의 이해	1) 유대교의 이해	-
		2) 힌두교의 이해	-
6단원 한국의 종교와 문화	1. 한국 고대 종교의 이해	1) 하늘신앙과 제천의례	-
		2) 무속과 민간신앙	-
		3) 풍수사상과 조상숭배	-
	2. 한국 전통 종교의 이해	1) 불교	(1) 불교의 전개 (2) 주요 인물의 사상
		2) 유교	-
		3) 도교	-
	3. 한국 근현대 종교의 이해	1) 그리스도교의 역사와 특성	-
		2) 신종교의 역사와 특성	-
		3) 이슬람교의 전래와 상황	-
7단원 개별 종교의 이해	1. 경전과 교리의 이해	1) 경전의 형성과 의미	석가모니, 경·율·논 삼장(三藏)
		2) 주요 교리 이해	연기, 무아, 윤회, 해탈, 열반, 육바라밀, 팔정도, 불이(不二), 공(空)
	2. 개별 종교 생활의 이해	1) 개별 종교의 생활문화 이해	석가탄신일, 출가일, 성도일, 열반일, 연등회, 붓다, 부처님, 사찰, 해탈교, 일주문, 불이문
		2) 종교의 장례문화 이해	입적(入寂), 다비(荼毘)
	3. 종교의 사회문화적 역할	1) 유교의 사회문화적 역할	-
		2) 불교의 사회문화적 역할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대장경판전, 삼보사찰, 템플 스테이, 인과응보
		3) 도교의 사회문화적 역할	-
		4) 그리스도교의 사회문화적 역할	-
	4. 종교관의 배경과 설계	1) 다종교사회의 현실 이해	윤회, 인과응보
		2) 다종교사회에 대한 성숙한 의식	포교
		3) 종교관의 설계	-

2. 2015 개정 시기

이 시기의 ‘종교학’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영역과 핵심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영역을 기준으로 볼 때, 직전의 7개 영역에서 6개 영역으로 조정되었다. 첫 번째 영역인 ‘인간과 종교’, 마지막 영역인 ‘개별 종교들의 이해’는 유지되었다. 이전 시기의 ‘종교의 이해’,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 ‘종교적 인간관, 사회관, 자연관’, ‘세계의 종교와 문화’, ‘한국의 종교와 문화’ 영역은 ‘종교의 구성’, ‘종교의 세계관’, ‘종교 전통과 문화유산’, ‘현대 사회와 종교’라는 영역명으로 개편되었다. 중단원과 소단원명까지 고려하면 전면 개편이 아닌 기존 5개 영역을 4개 영역으로 압축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의 영역이 축소된 영향인지 교과서의 분량도 이전에 비해 간소해진 편이다.

해당 내용 체계와 교과서 목차 체계를 차례로 비교하면, 이전 시기의 교과서의 경우처럼 대부분 국가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따라 교과서 단원명과 거의 동일하게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개별 종교들의 이해’ 영역이 마지막 단원인 “VI. 종교와 윤리”로 설정되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하면서도 『종교학』 교과서에 객관적 교양교육으로서의 입장을 담으려 했다는 취지로 추정된다(Ko, 2016: 21-22).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중단원명은 큰 변경 없이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 가지 특이 사항으로는 이 교과서는 서두에서 ‘머리말’과 ‘이 책의 구성과 특징’을 제공하여, 교과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교과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 이 시기 ‘종교학’ 교과는 개별 종교들의 지식이 총합이 아닌 종교의 여러 측면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체계를 세우고, 각 단원의 주제에 적합한 종교 현상과 사례들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전반에서 불교와 관련 서술을 일일이 찾아보아야 한다. 이 중에서 불교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교과서 본문들을 단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종교학』(2018) 교과서에서 사용된 불교 관련 개념 및 용어
 <Table 2>The Buddhist Concepts and Terms Used in the *Religious Studies* (2018)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불교 서술 관련 주요 개념어 및 목차
I. 인간과 종교	1. 종교의 의미	1) 삶의 문제와 종교	-
		2) 종교의 정의	-
	2. 종교의 역할	1) 종교의 심리적 역할	-
		2) 종교의 사회적 역할	-
	3. 종교의 자유	1) 종교 자유의 의미	-
		2) 종교 자유의 한계	-

<표 2> 『종교학』(2018) 교과서에서 사용된 불교 관련 개념 및 용어 (계속 1)

<Table 2>The Buddhist Concepts and Terms Used in the *Religious Studies* (2018) (continued 1)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불교 서술 관련 주요 개념어 및 목차
II. 종교의 구성	1. 경전과 교리	1) 경전의 뜻	석가모니, 결집,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소(疏)
		2) 경전과 교리	-
		3) 경전 해석의 역사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한역 불경, 팔만대장경, 교상판석(敎相判釋)
	2. 종교 의례	1) 달력 의례	석가(부처),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 출가절, 성도절, 열반절, 우란분절, 안거, 법회, 불공일, 조석예불, 붓다
		2) 통과 의례	수계 의식
		3) 희생 제의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과 실천 강조
		4) 재난 의례와 주술	-
	3. 종교 공동체	1) 종교 공동체의 형태와 특성	승가(sangha, 상가), 테라바다(Theravāda), 대승불교, 소승,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주지
		2) 종교 전문인과 신자의 관계	승려, 수행승, 승가대학(강원), 사부대중, 재가신도
		3) 종교 공동체의 책무	오계
III. 종교의 세계관	1. 종교의 인간관	1) 종교와 인간 이해	(3) 불교의 인간 이해: 불성(佛性), 깨달은 자, 붓다, 보살(菩薩), 자리아타
		2) 종교와 삶의 의미	불상(佛像)
	2. 종교의 역사관	1) 역사관과 우주관	(1) 순환적 역사관: 생노병사(生老病死), 성주괴공(成住壞空)
		2) 생사관과 구원관	(2) 구원의 문제: 해탈(解脫, moksa)
	3. 종교의 자연관	1) 종교의 자연 이해	연기(緣起), 인드라마, 법계연기, 삼라만상, 불성 업보, 윤회(輪廻, samsara), 욕도, 중생, 오온, 해탈, 법신불, 불살생, 업(業, Karma), 소신공양(燒身供養)
		2) 종교의 생명 이해	
IV. 종교 전통과 문화유산	1. 세계의 종교	1) 불교와 힌두교	(2) 붓다의 행적: 붓다(Buddha), 불타(佛陀), 부처님, 고타마 싯다르타(Gautama Siddhartha), 석가모니(釋迦牟尼) (3) 붓다의 가르침: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십이연기, 삼법인 (4) 부파불교(部派佛教): 상좌부(上座部), 대중부(大眾部), 아비다르마(abhidharma), 아비달마, 소승불교(小乘佛教), 대승불교(大乘佛教) (5)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보살, 정토(淨土), 선종(禪宗), 화두
		2) 유교와 도교	-
		3)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
		1) 한국 고대 종교의 이해	-
	2. 한국의 종교	2) 한국 전통 종교의 이해	(1) 불교: 불교 공인, 승랑(僧朗), 구산선문, 의상(義湘), 지눌(知訥), 간경도감
		3) 한국 근현대 종교의 이해	-

<표 2> 『종교학』(2018) 교과서에서 사용된 불교 관련 개념 및 용어 (계속 2)

<Table 2>The Buddhist Concepts and Terms Used in the *Religious Studies* (2018) (continued 2)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불교 서술 관련 주요 개념어 및 목차
IV. 종교 전통과 문화유산	3.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	1) 세계의 종교 문화유산들	(2) 라사의 포탈라궁: 달라이 라마, 영탑(靈塔) (3) 양곤의 슈웨다곤 사원: 미얀마 불교, 상좌부 불교 (4) 응현의 불궁사(佛宮寺): 응현목탑, 법당, 결가부좌
		2) 한국의 종교문화 유산들	(1) 해인사: 삼보(三寶), 팔만대장경, 법보 사찰, 대적광전, 대웅보전 (2) 통도사: 불보 사찰, 묘법연화경, 대웅전, 금강계단 (3) 송광사: 승보 사찰, 보조국사 지눌, 국사전
V. 현대 사회와 종교	1. 종교와 다종교 사회	1) 다종교사회와 윤리	(1) 한국의 종교 상황: 불교 인구 16%
		2) 종교 간 공존의 길	-
	2. 종교와 인권	1) 종교 차별과 인권 침해	-
		2) 인권 감수성과 종교	불살생, 자비
	3. 종교와 생명·과학	1) 생태계 파괴와 종교적 해법	인드라마생명공동체, 불교환경연대
		2) 종교와 과학의 충돌과 조화	-
	4. 종교와 다문화사회	1) 한국의 다문화 상황	-
		2) 다문화 상황과 종교	남방불교 신자
		3)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종교교육	-
		4) 다문화 감수성의 필요성	-
VI. 종교와 윤리	1. 주요 교리와 실천 규범	1) 여러 종교들의 교리	무아(無我, anatman), 연기(緣起, pratityasamutpada), 해탈, 열반(涅槃, nirvana), 극락(極樂, sukhāvatī)
		2) 여러 종교들의 실천 규범	팔정도(八正道), 육바라밀(六波羅蜜)
	2. 사회·문화적 실천	1) 종교의 사회적 책임	(2) 불교의 사회적 책임: 대승불교, 보살, 자리아타, 보시, 자비, 보살행
		2) 종교의 문화적 실천	-
	3. 종교인의 삶과 태도	1) 김창숙의 유교 윤리	-
		2) 보살행과 불교 윤리	인과응보, 보살, 붓다, 육바라밀, 보시
		3) 권정생과 기독교 윤리	-
		4) 자유의지와 이슬람교 윤리	-

3. 『종교학』 교과서 불교서술의 특징

교육부는 매년 <검정·인정도서 선정 매뉴얼>을 통하여 교과용 도서의 선정부터 공급체계까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교과용도서 평가기준 항목(예시)”는 총 1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 수준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중심으로 앞서 정리한 『종교학』 교과서의 불교 서술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째, 해당 교과서들이 불교와 관련하여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 업(業), 공(空), 연기(緣起) 등 불교 관련 전문용어들에 대해서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상가(samgha) 같이 산스크리트어를 병기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해당 단어들이 명시된 페이지의 날개 부분의 내주를 통해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 경향은 2015 개정 당시 발행된 교과서에서 좀 더 정교해진다. 무아(無我, anatman), 열반(涅槃, nirvana), 승가(samgha, 상가) 등과 같이 한자, 산스크리트어 동시 병기 및 원어의 한글 발음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산스크리트어 로마자 표기 시에 기호[International Alphabet of Sanskrit Transliteration] 체계가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보이기는 한다. 전도나 선교 등의 이웃 종교의 용어들처럼 불교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포교라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들도 찾아볼 수 있다. 불교의 교조를 지칭할 때, 붓다, 부처, 석가모니, 싯다르타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지만, 이런 사용도 2015 개정 시기의 교과서에 이르면 붓다의 생애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둘째, ‘개념 및 이론이 정확하고 검증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그 예시로서 테라바다 불교에 대한 설명 부분을 들 수 있다. 종교 공동체를 설명하는 단원에서 불교의 특성을 서술하면서, 소승이라는 표현은 대승불교의 입장의 편견을 가진 표현이니 테라바다 불교라고 부르는 것이 알맞다는 설명이다. 관점과 지향점이 다른 불교 전통 간의 시각 차이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불교사상사를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인접 교과인 윤리 교과서 사례처럼(Shin, 2019: 148-149), 삼법인(三法印) 등과 같이 불교의 시대별로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개념들은 언급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서술도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2009 개정부터 2015 개정까지 ‘종교학’ 교과서의 내용 체계의 연속성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2종 교과서의 본문 서술을 세밀하게 비교하면 내용의 유사성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다. 2015 개정 시기의 교과서가 2009 개정 시기의 교과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지점이지만, 두 번째 『종교학』에서부터는 기존 서술을 개선 부분들도 보인다. 불교의 전문 종교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불교대학에서 승가대학(강원)으로, 석가탄신일을 법정 공휴일 공식 명칭인 부처님오신날로, 불교의 중요한 명절인 출가일·성도일·열반일을 출가절·성

도절·열반절 등 불교적 정서에 가까운 용어로 개선한 부분들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다. 이 외에도 사용되는 개념어나 예시들도 보다 풍부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문제점과 한계도 존재한다. 현대의 불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 서술이 빈약한 편이다. 동양종교로서 함께 서술된 힌두교의 경우 간디, 타고르 등 20세기 현대 인물이 언급되지만, 템플 스테이와 시민사회의 생태운동 외에는 현대 한국에서 담당하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예시를 찾아보기 어렵다.

종합하자면 『종교학』 교과서 2종은 세밀한 서술에서 미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종교학’ 교과교육과정과 인정도서 선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발되었다. 동시에 해당 교과서들은 종립학교에서 특정 종교 신앙을 가진 학생들에게 이웃 종교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시키기에 적합하며, 더 나아가서는 비종교계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에서도 사용 가능한 교재로도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신앙심 고취 대신 중등교육과정의 종교 교과가 목표했던 객관적 교양교육으로서의 지향점을 교과서를 통해 구현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결어

지금까지 ‘종교학’ 교육과정과 관련 교과서들의 불교 서술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학 교과와 교과서에서 불교는 세계종교와 한국 전통 종교로서 주로 서술되고 있다. 또한 그 내용들의 중심이 되는 주요 개념이나 이론의 대부분이 정확하게 검증되어 있다. 둘째, 한국 종교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기술하면서도 현대 종교로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서술이 간략한 편인데, 이는 불교를 전통 종교로만 인식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보충이 필요하다. 셋째, 발행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2종의 교과서는 본문 내용의 유사성이 다수 발견되며, 후기 교과서는 이전 교과서 서술을 개선하여 발행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고민할 지점이 있다. ‘종교학’이라는 교과명에 적합한 교과서가 두 차례나 발행되었으나 그 채택률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었다. 종교 교과를 개설하는 학교들이 종교계 사립학교로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현재의 종교교육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으나, 이는 제도의 개정으로만 가능한 변화는 아니다. 향후 ‘삶과 종교’를 비롯한 종교 교과와 교과서 개발에서 이러한 장점과 한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집필진과 심의진 구성에 있어 다양성과 전문성을 더욱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 종교학 전공자 뿐 아니라 각 종교 전공자, 그리고 학교 현장의 관계자들이 집필과 심의의 모든 과정에서 통섭적으로 협력하면서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교과서 개발 참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해당 교과서의 도입과 쓰임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공동의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 개설을 위한 요식행위로 교과서를 채택하는데 멈추지 않고, 실제 교육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사용 지도서의 개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정 종교 전통에 익숙한 종교 교사들이 이웃 종교에 대한 교육까지 새롭게 담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개발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적 보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그 목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곧 발행될 새로운 『삶과 종교』 교과서는 종교를 역사와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종교의 본질을 사유하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교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종교 교과서의 지속적인 개발과 그 실제적 적용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연구의 지속을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References

- Choi, K. H. (202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Buddhist History Education in the Revised Curriculum for 2022.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169, 187-221.
- Chung, C. H. (2001), The 7th Curriculum Revision and Teaching Relig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3, 3-42.
- Kim, E. Y. (2020), Development of Religious Textbooks for Buddhist Missionary Schools: System and Reality, the History of Encounter and Parallel.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4, 41-54.
- Ko, B. C. (2016), The Revision History of the National Curriculum (Religious Studies) and 2015 Religious Studies Cours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1, 1-30.
- Ko, B. C. (2021), The Plac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Religious Textbook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6, 15-30.
- Lee, J. C. (2020), Changes in Religious Subjects and the Direction of Textbook Policy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2022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1, 41-60.
- Shin, H. J. (2019), Description structures and contents analysis on Buddhism in high school Ethics textbooks based on the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2015. *Journ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63, 135-164.
- Sohn, W. Y. (2020), A Critical Study on “Religious Studies” Textbook of Protestant School in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Peac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1, 21-40.
- 경상북도교육청 (2014). *고등학교 종교학*. 파주: 금강인쇄. (Translated in English)

-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2014). *Religious Studies*. Paju: Kumkang Print.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과학기술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Liberal Arts High School Curriculum*.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교육부 (2015).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15). *Liberal Arts High School Curriculum*.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6a). 바람직한 종교적 기술을 위한 2015 개정 도덕과 교과서 집필 참고자료. (Translated in English) Jogye Order Institute for the Study of Buddhism and Society (2016a). *2015 Revised Curriculum the Moral and Ethics Subjects Textbook Description Reference Materials for Religions*. Seoul: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6b). 바람직한 종교적 기술을 위한 2015 개정 통합사회 교과서 집필 참고자료. (Translated in English) Jogye Order Institute for the Study of Buddhism and Society (2016b). *2015 Revised Curriculum the Integrated Society Subjects Textbook Description Reference Materials for Religions*. Seoul: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8). *고등학교 종교학*. 서울: (주)지학사. (Translated in English)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2018). *Religious Studies*. Seoul: Jihaksa.